

성비위 처벌 교사, 최장 10년간 담임업무 배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현행 교원 460명 담임 배제 전망
담임 기피 만연... 혜택 지적도



성추행 등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최장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학교 현장에서 담임 배제가 불명예스러운 처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와 징계처분 수위에 따른 배제 기간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로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의 경우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파면·해임의 경우에도 임용고시를 다시 치르고 교단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배제 기간을 최장 기간으

로 정했다. 또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은 5년의 담임 배제 기간이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한 상황이어서 담임 배제가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보면 처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어 오히려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뒤 학교에 남아있는 교원 460여명이 담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로 ‘피해 학생이 가

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또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곽진영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왼쪽)과 박인숙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 건국대 행정대학원

건국대-서울시간호사회 의료 행정 전문화 맞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서울특별시 간호사회와 의료행정, 사회복지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계, 간호계 등 의료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정보교류, 학술 교류를 통한 의료 행정 전문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곽진영 행정대학원장, 이종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국대는 올해 후기부터 행정대학원에 ‘의료행정학과’를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한 바 있다. 곽진영 행정대학원장은 “신설된 의료행정학과는 보다 체계적인 의료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의료 거버넌스의 전문화를 이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호계 인재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이 지원해 의료행정학과에서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전문 의료행정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원광디지털대,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석권
원광디지털대학교 김춘심·임영주·최유정·김지현·이경미 학생은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인 2021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전시경연 부문에 참가해 ▲복숭아 만쥬 ▲꽃젤리코 ▲더덕양갱 ▲더덕정과 등 건강에 좋은 다양한 70여종의 약차, 꽃차, 아트차와 50여종의 다과를 전시한 작품으로 대상(농림축산부 장관상)을 받았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중앙대, 과기부 기초연구실 사업 선정

연구비 27억 4000만원 수주

중앙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집단연구지원사업(기초연구실)에 선정돼 총 27억4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하게 됐다.

중앙대는 과기정통부가 소규모 연구그룹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1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에 식품공학부 박종필 교수 연구팀과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두 연구팀은 이번 신규과제 선정으로 2024년 2월까지 각각 13억7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박종필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은 공동연구팀은 ‘난치성 대장질환 표적 진단 및 나노바이오제닉 정밀제어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사업에 선정됐다. 김선기 식품공

학부 교수와 박경순 시스템생명공학부 교수가 연구팀에 함께하며, 최창형 대구한의대 화장품공학부 교수도 힘을 모은다.

박종필 교수팀은 크론병 등의 염증성 대장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난치성 대장질환 정밀제어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은 공동연구팀은 ‘제로파워 신체강화 기초연구실’이라는 주제로 사업에 선정됐다. 기계공학부 소속 김승환 교수, 남우철 교수, 이기욱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다.

이상민 교수팀은 신체 활동 중 손상되는 에너지를 전달·저장하는 휴먼에너지 리커버리 기술을 개발해 자가 발전형 신체 증강·보호 시스템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ki1@

카이스트, 동물 과식 억제 신경망 시스템 발견

“식이장애·비만극복 도움 기대”

후긴 신경세포들 DH44 세포 활성화
국제 신경과학 학술지 ‘뉴런’ 게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섭식 행동을 억제하는 신경전달체계가 작동해 먹기를 중단한다. 이런 과식 억제 신호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인간의 식이장애나 비만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외 연구진이 과식 방지를 위한 새로운 억제 신경망에 대한 연구결과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KAIST는 생명과학과 서성배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뉴욕대학교 오양균 박사(제1저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초파리에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과식 억제 시스템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신경과학 전문 최고 권위 학술지 ‘뉴런’의 5월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 교수가 2015년 뉴욕대 재직 당시 초파리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다우레틱 호르몬(DH44) 펩타이드를 특이적으로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체내 당분의 농도를 감지함으로써 영양이 있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발견한 연구의 후속 연구다.

이전까지 포유동물의 뇌 속에서 영양분을 감지해 자신의 활성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들은 보고된 적이 있으나, 이들 영양분 감지 신경세포의 생물학적 기능은 이 연구를 통해 처음 보고됐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탄수화물 섭취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과도한 물리적 팽창으로부터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을 밝혔다. 또 초파리 척수에 해당하는 복부 신경중추에 있는 ‘후긴(Hugin)’ 신경세포는 체내에 순환되고 있는 영양분의 농도가 높을 때 이를 감지해 후긴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는 DH44세포들의 신경 활성을 억제하고, 이런 작용을 통해 이미 체내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 때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추가적 섭식 행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위 실험들을 통해 연구팀은 후긴 신경세포들이 각기 다른 물리적, 화학적 신호를 인지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DH44 세포 활성화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과식을 억제함을 확인했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동물의 뇌 속에 존재하는 영양분 감지 신경세포의 섭식 유도기능이 상위 신호전달 체계에 의해서 특이적으로 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며 “과식에 대한 억제는 독립적으로 인지되는 물리, 화학적 척도를 다각적으로 종합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만큼 동물 생존에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며, 인간의 식이장애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연구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한국외대 유럽커리어워크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유럽커리어워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럽에서 수학 및 근무하



는 동문들의 특강을 통해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외대 학생들에게 진로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유럽커리어워크는 4일간 텔레이 형식으로 4인의 동문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영국, 프랑스, 체코 등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문들은 본인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유럽 현지에서 커리어를 쌓는 방법과 현지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제시한다. 특강 후반부에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은 학생들이 궁금한 질문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유럽커리어워크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외대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